

‘인생책’ 한마디에 베스트셀러 등극... 新출판권력 ‘유튜브셀러’

(유튜브+베스트셀러)

‘광고 표시를 하지 않고 다수의 페이지에서 책을 홍보’, ‘한 뿌리에서 나온 것을 모르고 서평에 계속 노출되며 결국 책을 사게 됨’.

페이스북 그룹 ‘도서사기감시단’(감시단)에 6일 올라온 글이다. 광고 에이전시 체인지그라운드와 출판사 로크미디어 등의 홍보 방식을 지적하는 이들이 만든 단체다. 올해 6월 27일 개설됐고 가입 인원은 10일 기준으로 3096명이다.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페이지 13개에 대한 언팔로 운동과 광고·협찬 문구 표기 요청을 주로 한다. 회원들은 “정신노동이 제대로 평가받는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는 댓글을 달기도 했다.

인기 유튜버가 소개하는 책
단숨에 판매량 늘어 상위권 차지
출판사가 홍보 채널 운영하고
서평 이벤트 벌여 입소문 내기도
출판계, 베스트셀러 왜곡 우려
‘협찬 표시’ 등 대책 촉구 목소리

● “가성비 뛰어난” vs “불균형 심화”

올해 출판계의 뜨거운 화두는 유튜브셀러(유튜브+베스트셀러)다. ‘겨울서점’, ‘책읽자라’ 같은 북튜버가 부쩍 늘었고, ‘김미경TV’, ‘라이프해커자랑’, ‘신박사TV’ 등 출판계를 뒤흔드는 채널이 등장했다. 경제·자기계발서를 주로 소개하는 김미경TV의 ‘북드라마’에 책이 소개되면 베스트셀러 목록이 뜰씩인다. ‘라이프해커자랑’이 ‘인생을 바꾼 심리학 책’으로 꼽은 책은 절판 위기에서 벗어나 순식간에 베스트셀러에 올랐다.



최근 1, 2년간 소개하는 책마다 베스트셀러에 오르는 유튜브 채널이 여러 등장했다. 유튜브셀러 제조기로 불리는 ‘라이프해커자랑’(위)의 썸네일 화면과 ‘신박사TV’의 메인 화면(아래). 유튜브 캡처·교보문고 제공



로크미디어와 계열 출판사가 출간해 베스트셀러에 오른 ‘당신은 뇌를 고칠 수 있다’(브론스테인),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서’(비잉), ‘베스트셀프’(안드로메디안). (위부터)

이를 반기는 분위기도 있다. 대형 서점의 유료 매대나 인터넷 서점 광고보다 효과가 크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홍보·협찬 비용이 계속 오르면 대형 출판사와 중소형 출판사 간

불균형이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크다. 김지원 길벗출판사 디지털콘텐츠팀 차장은 “유튜브셀러를 필요로 하는 흐름은 막을 수 없다”면서도 “협찬 여부를 구독자에게 정확히 알리

는 것 같은 윤리 강령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 “新출판권력 유튜브셀러, 왜곡 현상 막아야” 출판계가 한목소리로 지적하는 문제는 유튜

버셀러로 인한 베스트셀러 왜곡이다. 출판계와 감시단에 따르면 출판사 로크미디어는 자사 홍보 채널인 ‘신박사TV’, ‘빠 있는 아무 말 대잔치’, ‘부도공부’, ‘더불어배우다’에 일제히 신간을 노출하고 서평을 단다. 입소문을 탄 책은 노출 빈도가 더 많아져 금방 베스트셀러 상위권을 차지한다. ‘돈의 역사’(로크미디어), ‘당신은 뇌를 고칠 수 있다’(브론스테인), ‘베스트셀프’(안드로메디안)가 이런 방식으로 올해 베스트셀러 10위권에 올랐다고 감시단은 지적했다. 로크미디어, 브론스테인, 안드로메디안, 커넥팅, 비잉은 모두 뿌리가 같은 출판사다.

한 출판사 대표는 “광고 에이전시 체인지그라운드는 유튜브, 카카오프렌즈와 1boon, 페이스북의 홍보 채널을 구축한 뒤 다른 책의 협찬·홍보도 진행한다. 일종의 마케팅 회사인 셈이다”라고 했다. 청년의 멘토를 자처하면서 자사 책을 구입하게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체인지그라운드가 운영하는 네이버 독서 모임 카페 ‘썬큐레이션’은 최근 ‘더 히스토리 오브 더 퓨처’(커넥팅)와 ‘모기’(커넥팅)를 3기 도서로 선정했다.

일부 유튜브 채널이 광고 수단이 됐다는 제보가 빚발치자 한국출판인회의는 지난달 25일 ‘유튜버셀러 현상을 진단한다’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출판인회의 측은 “베스트셀러 왜곡 현상에 대해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기로 했다. 독서는 취향이 중요하게 작용하는 만큼 구독자가 적은 유튜브 채널과 소형 출판사를 연결해 서로 ‘윈윈’하는 방식을 모색하겠다”고 했다. 한편으로는 블로그처럼 유튜브도 자연스럽게 자정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북튜버로 활동하는 이시한 성신여대 겸임교수는 “매달 방송을 여덟 번 하는데 한 번 정도만 협찬으로 진행된다. 협찬 비중이 커지면 채널의 매력 떨어지기 때문에 스스로 비율을 관리한다”고 말했다. 이설 기자 snow@donga.com



경기 하남시 조계종 포교도량 터에 있는 ‘상월선원’ 앞에서 11일 스님들이 동안거 결사에 들어가기 전 사부대중에게 인사를 전했다. 왼쪽부터 도림 재현 진각 심우 성곡 자승 호산 무연 인산 스님. 대한불교조계종 제공

하루 한끼 도시락에 서리 맞으며... 고독한 수행자로 돌아간 스님들

“불꽃 속에서 연꽃을 피워내는 수행이 될 것입니다.”

11일 오후 경기 하남시(위례신도시) 대한불교조계종 포교도량 부지, 겨우 오후 2시를 넘긴 시간인데도 햇빛은 벌써 자취를 감춰 냉기가 물씬했다. 하지만 뒤편 산마루에서 한때 군부대 법당의 흔적인 오랜 불상이 내려다보기 때문일까. 1000여 명의 기도 소리가 퍼지며

맞으며 달을 벗 삼는다는 뜻. 외부와 접촉을 끊고 묵언수행에 들어가는 스님들에게는 하루 한 끼 도시락을 제공한다. 게다가 특별한 난방도 없이 1인용 텐트와 침낭만 주어진다. 지객(知客) 소임을 맡은 호산 스님은 “최고령 성곡 스님(73세) 등의 건강이 가장 걱정이지만, 9명 모두 함께 육체적 정신적 추위와 배고픔을 이겨내려는 간절함으로 무아(無我)가 되고 하나가 되었다”고 말했다.

결사에 앞서 거행한 법회에는 조계종 종정인 진제 스님이 법문을 보내왔다. 호산 스님이 대독한 법문을 통해 “상월선원 결사는 생로병사라는 윤회의 흐름에서 벗어나 생사해탈의 대오견성(大悟見性)하기 위한 것”이라며 “중단의 여러 소임을 맡았던 이들이 다시 수행의 고향으로 돌아와 수행자의 본분을 다하고 있다”며 격려했다.

이날 법회에는 불교계 안팎에서 많은 인사가 참석해 결사에 임하는 스님들을 축원했다. 중앙종회의장인 법해 스님과 동국대 이사장 법산 스님, 조계사 주지 지현 스님, 봉은사 주지 원명 스님이 함께했다. 김순례 윤종필은 재 국회의원과 대한체육회장인 이기흥 중앙신도회장, 윤성이 동국대 총장 등도 참석했다. 불교와 인연이 깊은 소리꾼 장사의 씨는 스님들의 안녕을 비는 공연을 펼치기도 했다.

73세 성곡스님 포함한 9명 대형 야외 천막서 묵언수행

‘상월선원 동안거 결사’ 첫날 입재 법회에 1000여 명 참석

찬찬히 온기가 감돌기 시작했다.

자승 전 조계종 총무원장 등 저명한 스님 9명이 참여해 화재를 모은 ‘상월선원(霜月禪院) 동안거 결사’가 이날 오후 3시 입재 법회와 함께 열렸다. 결사에 참여한 자승 전 원장과 성곡 도림 재현 진각 심우 호산 무연 인산 스님은 미소로 객을 맞이하면서도 시종일관 결연한 표정이었다. 대형 임시막사로 지은 상월선원은 서리를

하남=정양환 기자 ray@donga.com

장성 백양사 총림 지정 해제에 지역 불교계 반발

조계종 ‘총림 구성 요건 못 갖춰’ 백양사, 성명 내고 재검토 촉구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종회가 최근 전남 장성 백양사를 주축으로 한 고불총림의 총림 지정 해제를 의결하자 백양사와 지역 불교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중앙종회는 6일 제217회 정기회에서 ‘백양사 고불총림 지정 해제의 건’을 정식 안건으로 채택해 출석의원 76명 중 67명의 찬성으로 가결했다.

종회는 지정 해제 이유로 고불총림이 총림법이 규정한 총림 구성 요건을 현저히 갖추지 못했다는 점, 제120회 중앙종회에서 고불총림 지정 당시 서용 스님(1912~2003) 생존시에만 총림을 인정하기로 조건부 지정했다는 점 등을 들었다. 중앙종회 관계자는 해제 사유로 “백양사의 승가대학원이 학인 수가 현저히 모자라고 템플스테이마저 건물 밖으로 이전해버렸다”고 전



전남 장성 백양사. 동아일보DB

했다. 총림 지정이 해제되면 백양사 주지 선출 권한은 총림의 어른인 방장 스님에서 산중총회로 이전된다. 현 백양사 주지인 토진 스님의 임기는 내년 4월까지다.

백양사 측은 11일 성명을 내고 재검토를 촉구했다. 백양사는 성명에서 “중앙종회가 이 안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백양사와의 협의가 없었다”며 “조계종 총무원에서 백양사에 대해 교육기관 미비 등을 개선하라고 한 것과 별개로 중앙종회가 총림 해제를 긴급 처리한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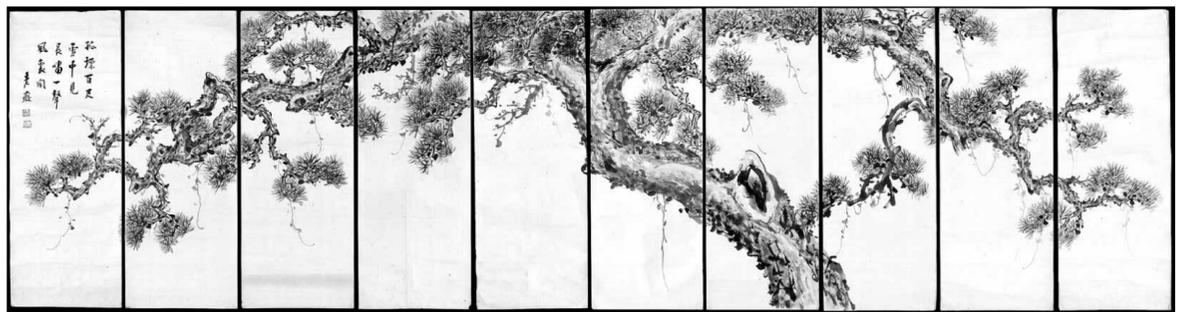
공감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전남 지역 시민사회단체들도 10일 백양사 방장인 지선 스님을 찾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들은 곧 지역사회 의견을 담은 입장을 내놓을 예정이다.

불교에서 총림(叢林)은 많은 승려가 모여 수행하는 곳을 통칭하는 말이다. 총림법에서 규정한 총림 구성 요건은 승려들의 참선수행 전문도량인 선원, 경전 교육기관인 강원, 계율 전문교육기관인 율원, 영불원 등이다. 이를 모두 갖춘 사찰이 총림으로 지정된다. 현재 백양사(고불총림)를 비롯해 통도사(영축총림), 해인사(가야총림), 송광사(조계총림), 수덕사(덕숭총림), 범어사(금정총림), 동화사(팔공총림), 쌍계사(쌍계총림) 등 8대 총림이 있다.

불교계에서는 고불총림 외에도 기본 요건들을 채우지 못한 총림이 적지 않아 이번 사태의 여파가 다른 총림에도 번질지 주목하고 있다.

임희윤 기자 imi@donga.com



소치 허련이 만년에 그린 노송도 첫 공개

국립중앙박물관 ‘명품 서화전’

남종화의 대가 소치 허련(1808~1893)이 만년에 그린 노송도(老松圖)가 새로 공개됐다. 허련은 추사 김정희가 높이 평가했던 제자였다. 국립중앙박물관은 내년 3월 15일까지 서울 용

산구 박물관에서 여는 ‘손세기·손창근 기증 명품 서화전 3·안복(眼福)을 나누다’에서 노송도를 전시한다. 열 폭 병풍에 소나무 한 그루를 가득 그린 대형 작품이다.

박물관은 “눈 덮인 산속에 홀로 우뚝 서 있는 소나무의 모습에서 허련의 완숙하고 거침없는

필력을 느낄 수 있다”며 “거대한 규모, 등치의 곱질과 구불거리는 가지의 역동적 표현은 스승의 영향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화풍을 이룬 것을 보여 준다”고 설명했다.

전시에서는 민영익(1860~1914), 장승업(1843~1897), 오세창(1864~1953) 등 19세기 서화가들의 면모를 볼 수 있는 작품 15점도 공개된다.

조종업 기자 joo@donga.com